

2025년 1월 29일(현지시간), ABL301(SAR446159)의 임상 개발 및 상업화 권리를 보유한 Sanofi는 2025년 4분기 실적을 공개했으며, 관련 자료에 ABL301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사는 즉시 Sanofi에 연락을 취했으며, Sanofi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았습니다.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는 환경 속에서, Sanofi는 현재 ABL301의 임상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치밀한 전략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ABL301은 alpha-synuclein 항체와 BBB 셔틀 플랫폼 Grabody-B가 결합된 이중항체입니다.

해당 임상 전략은 타사와의 경쟁으로 인해 공개가 불가능한 상황이나, Grabody-B 플랫폼에 대한 것이 아닌, 파킨슨병의 잠재적 병인으로 여겨지는 alpha-synuclein과 관련된 것입니다.

임상 전략의 수립 및 실행 가능 시기 등의 이유로 ABL301 후속 임상의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이에 해당 자료에서 부득이하게 우선순위를 조정한다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Sanofi는 설명했습니다.

Sanofi는 여전히 ABL301의 후속 임상 진행을 위해 면밀한 준비를 진행 중입니다. 해당 임상 전략에 따라 전체 신약 개발 시간의 단축 & 시간 및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함께 성공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질 것입니다.

ABL301의 임상 개발은 중단되거나, 계약이 해지 또는 파기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기사나 찌라시 내용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ABL301은 현재도 Sanofi의 파이프라인 자산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Sanofi의 ABL301 개발 의지는 강력하며, 당사와의 Communication 역시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ABL301의 후속 임상에서는 약물의 효능을 보다 직접적이고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분석 기법이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일정 지연이 아니라, 임상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GSK 및 Eli Lilly에 기술이전된 Grabody-B 플랫폼의 가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GSK 및 Eli Lilly와 진행 중인 Grabody-B 플랫폼 기반 연구개발은 계획대로 공격적인 타임라인 하에 진행 중입니다.

당사는 ABL301의 임상 1상 데이터를 통해 확인한 Grabody-B 플랫폼의 안전성과 기술적 유효성에 대해 GSK 및 Lilly와 공유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앞으로도 주주가치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신속하고 투명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Grabody-B 플랫폼의 여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